

## 강원도 태백시 금천 지역의 상부 고생대층의 무척추동물 화석의 지질시대와 층서적 위치

박수인\* · 선승대, 강원대학교 지구과학부, sweenp@cc.kangwon.ac.kr

강원도 태백시 장성 및 금천 일대에는 후기 고생대의 평안누층군이 넓게 분포한다.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하부를 이루고 있는 만항층과 금천층에 협재된 석회암에서는 중기 석탄기를 지시하는 코노돈트, 방추충 및 개형충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또한, 금천층의 최상부를 이루고 있는 담갈색의 셰일에서는 연체동물, 완족류, 극피동물 등의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이 연구는 이들 무척추동물 화석을 포함한 셰일층의 지질시대와 층서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밝혀 이들 화석의 층서적 중요성과 우리 나라 상부 고생대층의 층서확립 및 고환경 복원 연구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금천층 상부의 셰일에서는 *Aviculopecten germanus*, *A. vanvleeti*, *A. chouniukouensis*, *A. dissimilis*, *Hayasakapecten* sp., *Edmondia* sp., *Paleolima* sp. 등의 이매패 화석, *Pseudozygopleura* sp. 등의 복족류 화석, *Hemiplethorhynchus* sp., *Spriferllina* sp., *Desquamatica* sp. 등의 완족류 화석, 그리고 해백합 줄기 등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그동안 연구 지역의 생층서와 고환경 연구는 주로 방추충과 같은 미화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들 대형 화석들이 발견됨으로써 금천층의 층서와 고환경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화석을 포함한 셰일층의 층서적 위치가 만항층(중전의 홍점층)의 상부로 기재·보고되었다. 최근 필자들이 연구 지역의 상부 고생대층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무척추동물 화석을 포함한 셰일층은 금천층 상부 층준으로 밝혀졌으며, 이 셰일층의 약 3m 상부에는 장성층의 흑색 셰일이 분포한다. 또한 이 셰일층으로부터 약 4m되는 하위 층준에는 약 4m 두께의 회색 석회암이 분포됨이 확인되었다. 이 석회암에서는 코노돈트, 방추충 및 개형충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특히, 코노돈트 중에서는 중기 석탄기의 더모이네시안조(Desmoinesian stage)를 지시하는 *Idiognathodus delicatus*, *Neognathodus roundyi*, *N. dilatus* 및 *Diplognathodus edentulus* 등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따라서 강원도 태백시 금천 지역의 셰일층에서 산출되는 무척추동물 화석의 지질시대는 중기 석탄기의 더모이네시안 시대에 대비되며, 이 셰일층의 층서적 위치는 금천층의 상부이다.